

'벌써 4승'...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



지난 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공격을 성공시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I페퍼스, GS칼텍스 꺾고 시즌 4승 신고

리그 적응 테일러 존재감 '깜짝 활약' 이예림 재발전 팀워크·자신감 무장 10일 흥국생명전 이변 연출 주목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시즌 4 승째를 신고했다. AI페퍼스는 지난 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경기에서는 GS칼텍스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1 (15-25 25-18 25-15 25-16)로 역전승을 거두며 중위권 수성에 성공했다. 2021년 창단 후 지난 세 시즌 (2021-2022: 3승 2패, 2022-2023: 5승 3패, 2023-2024: 5승 3패) 동안 시즌 최다승이 5승에 불과했던 AI페퍼스는

정규리그 (3-6라운드) 24경기를 남긴 시점에서 시즌 4승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I페퍼스는 GS칼텍스를 상대로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라카노가 21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지난달 27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19점을 올리며 리그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준 테일러는 지난 1일 '블로킹 1위'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17점을 터

뜨렸다. 완벽 부활한 테일러는 킥 오픈과 후위 공격 등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테일러는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도 고비마다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주포로서 맹활약을 이어갔다. 박정아 대신 투입된 이예림의 '깜짝 활약'도 기대를 모았다. 현대건설, 도로공사에 이어 AI페퍼스에서 세 번째 기회를 잡은 이예림은 이날 48%의 성공률로 13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여기에 한다혜 리베로 (17개) 보다 많은 19개의 디그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돋보였다. AI페퍼스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3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1일 홈 대결에서 비록 0대 3 셋아웃 패를 당했으나 1-2세트 20점 득점 이후에도 끝까지 따라붙으며 흥국생명을 긴장하게 했다. AI페퍼스는 이원정 세터와의 호흡을 맞추며 경기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테일러와 이한비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합, 중앙의 장위, 수비 특화 선수에서 높은 공격률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예림까지, 경기를 거듭할 수록 탄탄한 팀워크로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다. GS칼텍스전 승리로 분위기를 다잡은 AI페퍼스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흥국생명의 발목을 잡는 북병으로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33)가 8일 열린 'UFC 310: 판토자 vs 아사쿠라' 메인이벤트 페더급 경기에서 네이트 랜드웨어(36-미국)를 TKO승으로 꺾고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두호, 8년 만에 UFC 2연승

랜드웨어에 TKO 압승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33)가 8년 만에 UFC 무대에서 연승을 수확했다. 최두호는 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310: 판토자 vs 아사쿠라' 메인이벤트 페더급 경기에서 네이트 랜드웨어(36-미국)에게 3라운드 3분 21초 만에 TKO 승리를 따냈다. 최두호가 UFC 무대에서 연승을 거둔 건 UFC에 입성한 초창기인 2014-2016년 3연승 이후 처음이다. 최두호는 지난 6월 빌 알지오(32-미국)전에서 승리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옥타곤에 올라가 승전고를 울렸다. 최두호가 같은 해 UFC 무대에서 2승을 수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최두호는 알지오전에서 2라운드 TKO 승리를 따내고, 이날은 3라운드 TKO 승리를 추가했다. 과거 체력이 약점으로 지적됐던 최두호는 경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간 뒤에도 승리해 한 단계 기량이 성장했다는 걸 입증했다. 이번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랜드웨어의 우세가 점쳐졌다. 랜드웨어는 러시아 종합격투기 단

체 M-1 글로벌 페더급 챔피언을 지낸 강자 출신이고, 최두호는 긴 공백기를 보낸 터라 도박사들은 랜드웨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두호는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랜드웨어를 압도해 현지에서는 오히려 '미스 매치' (잘못 붙인 대전)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존에 원투 스트레이트와 훅 조합으로 경기를 풀어갔던 최두호는 이날 단계 진화한 어퍼컷을 선보였다. 정확한 어퍼컷으로 랜드웨어의 턱을 때려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 최두호는 3라운드 들어 그라운드 싸움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그라운드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그는 팔꿈치 공격으로 조금씩 방어를 허물어갔고, 랜드웨어가 전혀 반격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자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최두호의 TKO 승리를 선언했다. 최두호는 다음 경기에는 브라이스 미첼(30-미국)과 맞붙고 싶다고 지목했다. 그라운드 기술이 감점인 미첼은 현재 UFC 페더급 13위다. 최두호는 "브라이스 미첼과 경기가 잡히면 랭킹에 들어갈 것 같다"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유니세프 팀' 반지를 착용한 김예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사격 스타 김예지, NYT 선정 '올해의 멋진 인물 63명'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사격 스타로 도약한 김예지(32)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멋진(Stylish) 인물 63명'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일은 지난 1년간 유세 현장과 레드 카펫, 경기장, 동물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2024년을 떠올리면 생각날 63개의 이름을 특별한 순서 없이 선정했다"며 김예지의 이름을 두 번째로 거론했다. 뉴욕타임스는 김예지에 대해 "한국의 명사수는 코끼리 인형과 영화 '매드 맥스'의 안경을 끼고 올림픽에 출전했고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는 10월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끝으로 잠시 권총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파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크리스티 롤리 크로스리(미국), 르브론 제임스와 그의 아들 브로니(이상 로스앤젤레스 레이크스), 프랑크 파리의 선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혼성단체 월드컵 혼복에 출전한 조대성(왼쪽)과 신유빈 (ITTF 홈페이지 제공)

한국, 혼성 월드컵 중국과 우승 다툼

신유빈 맹활약 홍콩 꺾고 결승 진출... "이번엔 우승이다"

한국 탁구가 2024 국제탁구연맹(ITTF) 혼성단체 월드컵 준결승에서 신유빈(대한항공)의 활약을 앞세워 홍콩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8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남자팀의 장우진(세아), 조대성(삼성생명), 안재현(한국거래소), 여자팀의 신유빈, 전지희(미래에셋증권), 서효원(한국마사회)을 앞세워 홍콩을 8-5로 물리쳤다. 이로써 한국은 결승에 올라 루마니아에 8-1로 완승한 중국과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이 대회가 출범한 작년에는 세계 최강 중국에 우승컵을 내주

고 준우승했다. 본선 1라운드 2위로 4강에 오른 한국은 1라운드 첫 경기 때 8-2로 꺾었던 홍콩과 다시 만나 기분 좋게 출발했다. 혼성단체 월드컵은 매치 점수가 아니라 각 매치의 게임 점수 합계로 승부를 가리며, 게임 점수에서 먼저 8점을 따낸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경기 혼합복식에서 콤비를 이룬 조대성-신유빈 조는 이우관토-은영람 조를 3-0(11-8 11-7 11-8)으로 완파했다.

두 번째 여자 단식에 나선 서효원은 두호이킴에게 0-3으로 완패해 게임스코어는 3-3 동점이 됐다. 하지만 남자 간판 장우진이 세 번째 남자 단식에 나서 왕춘팅에게 2-1(3-11 11-3 11-2) 역전승을 거둬 승부의 흐름을 바꿨다. 이어 네 번째 남자복식의 안재현-조대성 조도 왕춘팅-이우관토 조에 2-1(9-11 11-9 13-11) 역전승을 다했다. 한국이 게임스코어 7-5로 앞섰다. 신유빈은 마지막 다섯 번째 여자복식에서 전지희와 호흡을 맞춰 은영람-두호이킴 조에 1-0(11-4)으로 이겨 먼저 8점에 도달하면서 한국의 승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FA 최대어 후인 소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치솟는 소토 '몸값'...1조원 넘을까

NYP "오타니의 역대 최고 7억달러 계약 경신 예약"

후인 소토(26)가 오타니 쇼헤이(30)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하며 기록한 7억달러(약 9천988억원)를 넘어선 '전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 계약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뉴욕 메츠가 최근 소토에게 7억1천만-7억3천만달러 수준으로 제안 금액을 올렸다"며 "조만간 기록적인 계약이 탄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양키스, 메츠, 보스턴 레드삭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4개 구단이 소토에게 7억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했고, 양키스와 메츠는 제안액을 더 높였다"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도 소토 영입전에서 발을 빼지는 않았다. 소토가 최고액을 제시한 구단과 계약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조 건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7억달러에 계약했다. MLB닷컴은 "오타니의 계약은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프로 축구 프리메라리가 FC 바르셀로나와 2017년 한 6억7천400만달러를 뛰여넘는 전 세계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액"이라고 소개했다. MLB닷컴은 "오타니가 지금 유예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실제 가치는 7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소토가 명실상부한 '최고액 계약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토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뛰던 2022년, 15년 4억4천만달러의 다년 계약 제안을 거절했다. 이번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꼽힌 소토를 놓고 영입전이 치열해지면서 예상 계약 총액은 7억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